

【국 어】

1. 단어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읏’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이 일어나 [온]으로 발음된다.
- ② ‘닫는다’는 동화 현상인 유음화가 일어나 [닫는다]로 발음된다.
- ③ ‘닭’, ‘넋’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각각 [닥], [넋]으로 발음된다.
- ④ ‘쌍지’, ‘떡히다’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 각각 [싸치], [머키다]로 발음된다.

2. 다음 <보기>는 ‘-더니’에 대한 자료 조사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더니’ 「어미」(‘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 ‘겠’ 뒤에 붙어)

(가)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 주는
㉠. 주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원인이 된다.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온몸이 쭉신다.』

(나) 지금의 사실이 과거의 경험으로 알았던 사실과 다를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_____ ㉡_____』

(다) (구어체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묻는 종결 어미.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 일이 참말이더니? / _____ ㉢_____』

- ① ㉠에 들어갈 말은 ‘었’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관형사형 어미’이다.
- ③ ㉢에는 ‘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더니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어머님께서 진지는 잘 잡수시더니?’를 넣을 수 있다.

3. 다음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적용된 단어가 아닌 것은?

— < 보 기 > —

제7항 ‘ㄷ’ 소리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예) 덧저고리	자칫하면	돛자리
---------	------	-----

- ① 무릇 ② 엇셈 ③ 웃어른 ④ 훗일

4.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세 국어의 자료	중세 국어의 특징
도훈(좋은), 기프니(깊으니), 나랏 말쑥미(나라의 말이)	㉠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가 쓰였다.
수비 니겨 날로 뿌메(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
세존(世尊)ㅅ 말을 듣좁고 (세존의 말을 듣고)	㉢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좁’이 쓰였다.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니)	㉣ 주격 조사 ‘-히’가 쓰였다.

-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fighting 화이팅	㉡ coffee shop 커피숍
㉢ chocolate 초콜릿	㉣ Paris 파리

- ① ㉠은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에 따라 ‘파이팅’으로 고쳐야 한다.
- ② ㉡은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에 따라 ‘커피숍’으로 고쳐야 한다.
- ③ ㉢은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에 따라 ‘초콜릿’으로 고쳐야 한다.
- ④ ㉣은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 “과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파리’로 고쳐야 한다.

6.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 **채** 「의존명사」 ‘-은/는 채로’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 **체** 「의존명사」 ‘-은/는’ 뒤에 쓰여,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 ㉢ **째**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사과를 껍질**채**로 먹었다.
- ② 모르는 **채**를 하며 고개를 돌렸다.
- ③ 벽에 기대앉은 **체**로 잠이 들었다.
- ④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7.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간혹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마다 뒷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 내리는 동안 뒤섞여 있는 생각들이 정리되곤 한다. 나에게 뒷산은 듬직한 ㉣형 같다.

- ① ㉠: ‘-르지’는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해야 한다.
- ② ㉡: ‘-마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때’와 ‘마다’를 붙여 ‘때마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③ ㉢: ‘오르내리-’는 두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오르-’와 ‘내리-’를 붙여 ‘오르내리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 ④ ㉣: ‘같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형’과 ‘같다’를 붙여 ‘형같다’로 수정해야 한다.

8. 다음 <보기>의 ㉠~㉣에 대한 높임 표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영이: 철수야, 선생님께서 내일 오전에 ㉠오시라고 하셔.
철수: 왜? 무슨 일이 있어?
영이: 선생님이 너에게 ㉡물을 일이 있다고 ㉢하셔.
철수: 언제 가면 돼?
영이: 몰라.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

- ① ㉠: 서술어의 주체가 ‘철수’이므로 ‘오라고’로 고쳐야 한다.
- ② ㉡: 서술어의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물으실’로 고쳐야 한다.
- ③ ㉢: 인용 동사 ‘하다’의 주체가 ‘철수’이므로 ‘해’로 고쳐야 한다.
- ④ ㉣: 서술어의 객체가 ‘선생님’이므로 ‘여쭙봐’로 고쳐야 한다.

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을 문장이라 한다. 그런데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이때 필수적 문장 성분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① 형은 아빠와 많이 닮았다.
- ② 누나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③ 나는 종일 집에서 동생과 놀았다.
- ④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겼다.

10. 다음 <보기>는 옳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옳바르지 않은 문장의 유형으로는, ㉠문장 성분끼리 호응하지 않은 경우, 문장의 성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경우, ㉢중의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조사나 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 ① ㉠: 그날 밤중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
- ②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 ③ ㉢: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 ④ ㉣: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11. 다음 (가)~(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거실은 초록색 계열의 파스텔 톤으로 정돈했는데 초록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침실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연한 보라색으로 꾸몄고 침실 한편에는 라벤더 화분을 놓아두었다.

(나) 색채는 직관적인 의미나 느낌을 전달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이며 사람의 감정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를 활용해 최근 새로 단장한 친구의 집을 둘러보았다.

(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보라색이 명상과 자기 성찰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 공부방은 노란색을 바탕으로 꾸몄는데 노란색은 집중력을 높이고 에너지가 솟아나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특별히 선택한 색이라고 한다.

- ① (가)–(나)–(다) ② (나)–(가)–(다)
- ③ (가)–(다)–(나) ④ (나)–(다)–(가)

12.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카슨은 1958년, 조류학자이자 친구인 허킨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편지는 정부가 모기를 방제하기 위해 숲속에 디디티(DDT)를 살포한 이후 자신이 기르던 많은 새들이 죽었고, 이에 당국에 항의했지만 당국은 디디티가 동물에 무해하다며, 자신의 항의를 묵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카슨은 너무나 손쉽게 널리 사용되는 바로 이 디디티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결심한다. 카슨의 “침묵의 봄”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책이다.

- ①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② 사실과 주장을 주의하며 읽는다.
- ③ 정서적이거나 공감이 되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
- ④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읽는다.

1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 ① 1인칭의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역설적인 시적 논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실에서 삶의 본질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 ④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한다.

14.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읍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좌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 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물 간의 극적 갈등이 시작된다.
- ② 여정을 따라 등장인물의 의식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특정 시대의 소재를 등장시켜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각종 문장부호의 사용을 통해 특정 부분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릿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깐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 ① 우리 민족의 삶을 노래한 문학이다.
- ② 가창 과정에서 특정 후렴구가 발달했다.
- ③ 일상어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골계미와 같은 판소리의 미학적 요소를 담아내고자 했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사또 들어가 단좌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 저분,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결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렵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을 내어 주니 좌중이 다 못하여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뽕싸, 일이 났다.”

1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당대 사회의 현실 고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④ 언어 유희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17. (㉠)과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반 백성의 피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 ②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반 백성의 피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탄식소리 높았더라.
- ③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반 백성의 삶이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칭찬소리 높았더라.
- ④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반 백성의 희망이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찬양소리 높았더라.

18.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양의 유토피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유형 유토피아는 중국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의 소설체 산문 ‘도화원기’에 등장한다. 무릉 땅에 사는 어부가 강물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는데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을 지나자 산의 막다른 곳에서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을 통과하니 별천지가 전개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 나타났다. 어부는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는 나중에 다시 찾아갈 생각으로 산길에 표시를 해 놓았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표시가 모두 없어져 결국 []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① 安分知足 ② 簞瓢陋巷 ③ 武陵桃源 ④ 風月主人

19. 다음 글의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 한정적이고 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며, 정전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낭독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독서를 중시했다. 근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 생산되고 대중 교육이 실시되어 독서가 보편화되면서, 묵독이 일반화되고 속독과 다독이 강조되었다. 오늘날에는 전자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독서 문화가 더욱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유교 경전이나 모범적인 글인 정전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관습적 글쓰기가 강조되었다. 근대 이후 전문 작가에 의한 글쓰기가 이루어졌으며, 창의적 글쓰기를 강조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독자와 작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집단적 글쓰기 등 새로운 글쓰기 양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 ① 시대 변화에 따른 글쓰기 관습의 변화
- ②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독서 문화의 변화
- ③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글쓰기 방식의 변화
- ④ 과거와 현재의 독서 방식에 따른 독서 가치의 변화

2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설. 울대 군중에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화광이 충천하니, 부인이 계화를 명하여 부적을 던지고, 왼손에 홍화선을 들고,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 실을 매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당으로부터 큰바람이 일며 도리어 오랑캐 중으로 불길이 일며 오랑캐 군사가 불 속에 들어 천지를 분변치 못하니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라. 울대 대경하여 양천탄식하기를, “기병하여 조선에 왔으나 이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를 뵈오리오.” 하더라.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드러낸다.
- ②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니고 있어 영웅소설로 분류되고 있다.
- ④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볼 수 있다.